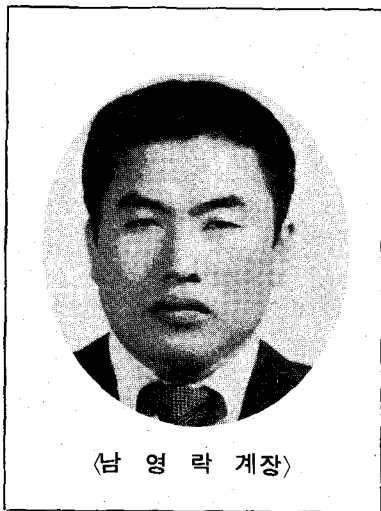


병·충전염원 초기박멸로 대풍을 이루자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고 잘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옛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던 것이다. 이제 주곡인 쌀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매년 반복되어 온 일이지만, 이 시기에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금년농사 준비를 다시 손질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작년의 농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작년보다는 좀더 개선된 금년농사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겠다.

뭇니뭇니해도 농사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것은 기상여건에 따른 풍수해와 병충해 등의 재해가 문제시되겠다. 그러나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풍수해 및 한발 등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겠지만, 매년 유난히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도 병해충 피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재해극복이 가능하므로 올해는 5년간 연속 풍년을 위해 초기 병충해 전염원부터 막아 병충해가 없는 풍년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농수산부 식물방역과 남 영 락

박멸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다.

병충해 초기박멸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동병해충 생존량을 조사는 발두렁 불태우기 등 방제추진
○ 대상병충: 도열병, 문고병, 애멸구, 끝동매미충 등
○ 조사내용: 균사생존율, 균핵생존량, 밀도 및 보독충율 등.
2. 이병벚짚, 복더기 등의 전염원 제거
○ 월동기간에 벚짚을 2~3등분하여 논 전면에 고루 살포하고 조춘경 및 담수 실시
○ 이병벚짚 및 복더기 숙성

전염원 초기 박멸

초기 병충해 전염원제거를 위해 월동병해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또 월동병해충별로

퇴비 제조

3.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여 종자전염 근절

○ 실시기간 : 1 모작 : 3. 25

~ 4. 15.

2 모작 : 4. 25

~ 4. 30.

○ 종자소독약제등 조기약제 전량 확보 공급

○ 전 수도재배면적의 소요종자 전량을 마을단위 공동 실시

○ 종자소독 기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소독효과 제고

○ 기계이앙 육묘에 대한 책임방제 실시(입고병, 키리다병 등)

이상과 같이 전염원제거에 총력을 경주하므로써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야 하겠다.

못자리 병충해 방제

아울러 못자리농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옛부터 “못자리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를 얼마나 잘길러 본답에 내느냐에 따라 다수확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병충해못자리 방제 측면에서 볼때 못자리에 병이 걸리면 그 못자리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병모는 본답이앙을 금지하여야겠다. 이는 병걸린 못자리의 모를 본논에 이앙할 시 병충해의 확산원이 되어 병충해방제가 어려워짐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못자리 병충해방제를 위해 중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못자리설치 시에는 건묘육성을 위해 규산질비료를 시용토록하되 '84기준량미시용필지 및 '85신규시용대상 못자리에는 의무적으로 못자리설치 10~30일 전에 시용토록하고 약효지속 기간이 긴 도열병 입제농약을 반드시 시용하여야겠다.

못자리설치 후 3엽기까지는 비닐제거가 지난하고 상내의 고온다습이 도열병발생을 유발시킬뿐만 아니라 상내가 도열병포자의 온상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입제농약을 시용토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 위와같이 모든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시는 비닐제거 후 도열병방제농약(유액제)을 3~4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므로써 완전방제를 하여야겠다.

3. 기계이양요판에서는 입고병, 모잘룩병 등에 대해서도 사전 방제를 철저히 해야겠다.
4. 본답 이양시에 이병모이양은 절대 금지시켜야함은 앞에 지적한 바와 같고 또 노숙묘나 잔여묘도 도열병 등의 발병 원의 역할을 하니 일정한 장

소에 모아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5. 기타 못자리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시로 살펴보고 잡초, 이병주, 잡수 등도 제거하여야하며 물관리, 통풍관리도 철저히 이행하여야겠다.

농약관리자반 교육실시 1주일간, 농업공무원교육원서

농약관리자반 교육이 지난 3.4~3.9(6일간)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150명이 참석했으며, △농약의 관리제도△농약의 품질관리 △신농약의 개발방향 △농약의 독성과 잔류성 △중독방지와 해독 △방제기구 △벼농사 및 원예작물 병충해방제 △종자소독기술 △병해충 발생예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의 작용특성 등에 관해 밀도있는 교육을 받았다.

한편 농약공업협회는 위의 내용을 실은 「농약관리자반 교재」(4×6 배판, 390 페이지) 500부를 발간했다.

시판상교육교재발간 3천부제작, 전국에 배포

농수산부와 농약공업협회는 농약시중판상 관리자의 자질향상과 신규농약의 특성등을 지도하기 위해 「농약판매업관리자반 교재」 3,000부를 제작, 각 지도에 배포했다.

판매상·관리인 2,800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책임하에 도단위로 실시될 이번 교육은 △농약의 관리제도△농약의 품질관리 대책△농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병충해 방제요령 등에 관해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자는 도지사의 교육수료증을 받게 되며 판매업소에 비치토록 되어 있다.

또 3월 중에 교육미필자는 2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